

스승의 자리

李 海 明

(檀國大 特殊教育科)

교직은 목회나 의료업과 함께 성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학의 전통이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직이 그 중의 으뜸 가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질적인 보수야 어떻든 교직은 명목상으로는 가장 보람 있는 직업 중의 하나로 꼽혀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그러한 명목적인 긍지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투쟁의 대상이 학교 밖의 정치적 문제에서 학교 안의 학사 문제로 바뀌면서 사제간의 전통적 관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사제 관계가 수직적이었던 요즘 관계는 수평적이거나 또는 역 수직적인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학생들의 주장에는 건설적인 것도 많고 신선한 논리가 많은 것을 느낀 때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태도나 생각을 반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식견이 부족해서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할 경우에는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비애를 느끼게 된다.

가령 무능 교수 문제를 학생들이 거론할 때가 그렇다. 학생들이 누구 누구는 무능이라고 대자

보나 유인물에 써 붙인 것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어진다. 또 학생들을 대할 자신이 없어진다. 동료 교수를 무능으로 탄핵하는 '무서운' 학생들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진리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 자신도 어느 날 누구에 의해서건 무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단 말인가? 평가란 것이 상대적인 것인 이상, 내가 만약 보다 우수한 집단에 소속된다면 나는 틀림없이 무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그런 변명이 학생들에게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 고…….

그렇다면 우리의 좌표는 어디인가? 무능이 아닌 실력 있는 교수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상대적으로 교수를 평가해서 각 영역마다 가장 우수한 교수를 고른다면 대체 몇 명 정도의 교수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몇몇 교수를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 대부분의 무능 교수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또 가장 우수한 몇몇 교수의 제자가 되는 행운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

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서양의 경우처럼 학생의 교수 평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무능한 교수를 도태시키는 경쟁 제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적의 인플레이션상, 교수가 학생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현상, 그리고 학생의 교수 평가가 감정에 치우치는 점 등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즉 스승의 좌표를 어디에다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말이다. 스승의 좌표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한정시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식을 전달하는 이상의 인간적인 관계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Eisner, Elliot는 교실에서의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즉 교과목 이수를 통해서 얻는 결과, 교사를 통해서 얻는 결과, 그리고 학생 스스로에 의해서 얻는 결과 등이 그것이다.

첫째, 교과 학습의 결과란 교사가 교과목을 수단으로 하여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일정한 교과를 일정한 교재를 매개로 하여 교사가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평가를 해보는 것으로서 끝나는 과정이다. 그것은 교사가 의도한 바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1차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과정이다.

둘째, 학생들이 교사가 지시하는 것 이상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설명하고 지시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흥미나 능력,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배운다. 이것은 학생들 스스로 터

득해서 얻는 귀중한 학습의 한 결과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되는 속에서 그 학생은 놀람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대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류의 위대한 천재들이 배출되었던 것이다.

세째,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지적인 스타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사의 의지, 교사의 인격 등등의 교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면이다. 이러한 면들은 현대 산업 사회의 교육에서는 무시되어 왔지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교과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진실로 한 위대한 교사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교사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성격, 그리고 흥미 등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가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갖는 인격성은 무시되고 교과를 통한 지식의 전달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권이 무너지고 말았다. 교사는 그의 인격성을 통하여 피교육자와 만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의 설 자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교사의 인격성이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때에만 스승의 좌표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이 험난한 세상, 소용돌이 치는 대학 사회에서 교수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좌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인 만남밖에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 좌표는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적인 과도기 속에서는 희미하고 멀기만 하다. 파고가 너무 높아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